

명품 '구찌'도 반한 판타지 격투 만화가

日 만화 '쥬쥬의 기묘한 모험' 작가 아라키 국내 첫 인터뷰



만화 '쥬쥬의 기묘한 모험' 원작자 아라키. 기묘한 동작의 작은 사진은 '2대 쥬쥬' 조셉 죠스타.

“오라오라오라!” 이 박력과 기합으로 대표되는 일본 만화 ‘쥬쥬의 기묘한 모험’이 연재 30주년을 맞았다. 일본 누적 판매 1억부, 판타지 장르의 전설로 군림하며 국내에선 해적판으로만 떠돌던 이 만화는 애니복스가 2013년부터 정식 발매해 현재까지 25만부가 팔려나갔다. “주 5일 규칙적인 작업 습관이 지금껏 연재를 가능케 한 것 같아요.” 30번째 ‘쥬쥬’를 그리고 있는 만화가 아라키 히로히코(57)와 이메일로 만났다. 한국 언론과는 첫 인터뷰다.

현재 8부까지 연재 중인 ‘쥬쥬’는 1890년대부터 최근까지, 영국과 이탈리아와 일본과 미국 서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대와 장소를 아우르며 쥬쥬가(家)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말 그대로 기묘한 모험을 펼치는 이야기다. 사람 대 사람의 대결이 아닌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수호령이 대결한다는 ‘스탠드’(Stand) 콘셉

트는 이후 만화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히로히코는 “책이나 드라마 등 다양하지만 굳이 하나 꼽자면 공포 영화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했다. 기괴하게 잘려나가는 몸통이라거나 인물의 표정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레드제플린·잭스 브라운 등 해외 록을 좋아한다”는 고백처럼, 탐(探) 동양 취향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1980년대 처음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르네상스 조각상과 그림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건 유명

연재 30주년, 일본 누적 판매 1억부 구찌와 협업... 전시 일러스트 그려

르네상스 조각에 감명, 작품 탄생 “5일 작업 습관 덕에 지금껏 그려”

한 일화.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고 했다. 스무살에 데뷔해 7년 뒤 발표된 이 일곱 번째 작품으로, 그 또한 르네상스를 맞이하

려한 패션쇼를 방불케하는 작화(作畵) 역시 이탈리아에서 온 것이다. “등장 인물의 성격을 패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는 덕분에 2011년 90주년을 맞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Gucci)와 협업해 전시용 일러스트 등을 맡기도 했다. 캐릭터의 화려한 복식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 혹은 모스키노 카탈로그에서 참고한다. 외국 문물에 관심이 큰 그는 “한국 만화라면 김성환 화백의 ‘고바우 아저씨’를 알고 있다”고 했다.

부(部)가 바뀔 때마다 주인공 이름(쥬쥬)을 제외하고 모든 게 새로워진다. “따라서 만화 캐릭터의 취미나 배경 등도 세세하게 생각해가면서 그리고 있다”고 했다. 그림체 역시 끊임없이 바뀌어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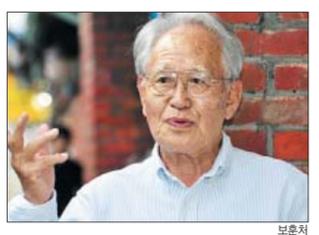
‘복두의 권’을 연상케했던 그림은 점차 특별한 아라키체(體)를 획득해나가고 있다. 그는 “스토리가 바뀔 때마다 화풍을 바린다”고 했다. “생각해 둔 ‘완성형’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만족해 멈춰버리지 않도록 항상 모색하고 있어요.”

격투신이 많다 보니 과도한 남성성과 폭력성을 염려하기 쉽지만, 6부의 주인공은 여자였고, 연재 중인 8부의 테마는 가족이다. “가족은 인간 조직과 행위의 최소 단위죠. 사회의 모든 관계와 사건을 최소 단위로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간 펼쳐진 기묘한 모험에서 쥬쥬가 부르는 건 ‘인간 찬가’(人間讃歌). “기게 나 신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정신력으로 문제에 맞서 성장하는 모습이 ‘인간 찬가’입니다. 계속 그런 인간을 그리고 싶습니다.” 독자를 사로잡는 명대사가 속출한다. 그는 ‘쥬쥬’에 등장하는 캐릭터 키시베 로한이 내뱉는 “하나 거절한다”를 가장 애정하는 대사로 꼽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완결은 모르는 일”이라며 향간의 소문을 일축했다. 아직 마지막은 거절한다. 정상혁 기자



6·25 남침 1보 방송했던 아나운서 訪韓

위진록씨와 참전용사 등 81명 보훈처, 6·25전쟁 기념식 초청



보훈처

6·25전쟁 67주년을 맞아 당시 남침 제1보를 방송했던 위진록(89·사진) 전 KBS 아나운서 등 81명이 한국을 찾는다. 국가보훈처는 “미국 참전 용사 가족과 해외 교포 참전 용사 등 81명을 초청해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20일 밝혔다.

위씨는 1950년 6월 25일 오전 7시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인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공산군은 38선 전역에서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라고 6·25전쟁 발발 사실을 처음 알리는 방송을 했다. 1950년 9월 28일에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새벽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완전히 탈환하고...”로 이어진 서울 수복 제1보 방송을 했다. 1972년 미국으로 이민 간 위씨는 보훈처의 초청으로 이번 기념식에 참석하게 됐다.

위씨 외에도 미 해군 중위로 참전해 전

투기 조종사로 활약하며 은성훈장을 받은 엠머 로이스 윌리엄(92) 예비역 해군 대령, 미 해병대 1사단 상병으로 참전해 장진호 전투를 직접 겪었던 제임스 워런 길리스(87)씨, 전쟁 중이었던 1951년 육군간호학교 1기모 임관해 부상자 치료를 맡았던 제미 교포 이종선(85) 예비역 소령 등이 한국을 찾았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위씨 등은 22일부터 5박 6일 동안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23일 국군과 유엔 참전 용사를 위한 감사 위로연에 참석하고, 24일에는 판문점과 국립현충원을 찾는다. 25일에는 6·25전쟁 6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27일 귀국길에 오른다. 김진명 기자

트럼프는 CIA국장을 제일 좋아해

트럼프와 각료들 對面 횡수 분석 온갖 정보 가진 폼페이오 1위



오고간다. 백악관 내에 그의 임시 사무실이 마련될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각료는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중앙정보국(CIA) 국장이라고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의 대면(對面) 횡수 분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자주 만나는 각료는 온갖 ‘정보’를 쥐고 있는 폼페이오 국장”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사안을 대면 브리핑하기 위해 매일 CIA 본부가 있는 버지니아주(州) 랭리와 워싱턴DC 백악관을

폴리티코에 따르면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알버트 로스 상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스티브 프루이 환경보호청(EPA) 청장 등도 백악관을 자주 드나드는 단골 각료들이다. 틸러스 장관의 경우 취임 이후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34차례 따로 만난 것으로 집계됐고, 프루이 청장은 1주일에도 몇 차례 백악관에서 밥을 먹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이 가장 많이 찍힌 각료로 알려진 로스 장관은 “백악관에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백악관 관료)고 한다. 변희원 기자

아리아나 그란데, 8월에 서울 온다

영국 테러 충격 딛고 첫 내한 15일 고척스카이돔서 공연



유니버설뮤직

미국의 여성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24·사진)가 오는 8월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첫 내한 공연을 갖는다고 공연 주최사인 현대카드가 20일 밝혔다.

그란데는 지난달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에서 열린 자신의 콘서트에서 리비아계 영국 청년의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23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부상하자, 이후 공연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맨체스터 어린이 병원을 찾아가 테러로 다친 소녀 팬을 병문안했다. 또 지난 4일에는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맨체스터의 크리켓 경기장에서 5만명 팬이 모인 가운데 자신 추모 공연을 열었다. 그란데는 팝 가수 스티비 니콜라와 저스틴 비버, 록 그룹 콜드플레이 등이 참가한 이 공연을 통해 1000만파운드(약 144억원)를 모금해 영국 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그란데는 15세 때인 2008년 뮤지컬 ‘13’을 통해 데뷔했으며 2013년 발표한 데뷔 음반으로 빌보드 음반 차트 1위를 기록했다. 그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신인상을 받았다. 이듬해 2집 음반에서는 ‘문제(Problem)’ 같은 곡이 사랑받았다. 올해 국내에서 5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미녀와 야수’의 동명(同名) 주제를 남성 가수 존 레전드와 함께 부르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달까지 음식배달 고민한 KAIST팀, 최고賞

NASA 주최 우주탐사대회 “美 대학팀들 공동연구 제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탐사 대회에서 최고 상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생 이주성(왼쪽부터)·고재열·최석민·서준은·이은광씨.

국내 대학원생들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주최한 우주 탐사 대회에서 최고 상을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항공우주공학학과 대학원생 고재열·서준은·이주성·최석민·이은광씨 등 5명이 NASA가 주관한 항공우주 임무 설계 경연대회 라스칼(RASCAL)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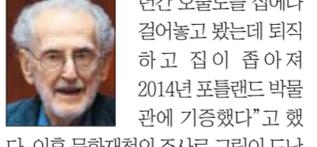
KAIST 학생들은 참가팀에 미국 학생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대회 규정에 따라 텍사스 공대와 연합해 8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출전했다. KAIST 팀은 대회 4개 분야 중 ‘장기간 유인(有人) 달 탐사를 위한 물자 전송 시스템 설계’ 분야에 참가했다. 대회 과제는 1년간 우주비행사 4명이 달에 거주할 때 필요한 음식과 탐사선의 연료, 연구 도구를 어떻게 지구에서 달까지 효율적으로 실어나를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KAIST 팀은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대회 본선에서 14개 팀 중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없지만 향후 NASA에서 수상작을 채택하면 기술 상용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과제 발표를 맡은 최석민씨는 “우주비행사의 건강 이상 등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설계에 반영한 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대회에 참가한 미국 대학팀들에서 공동 연구 제의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최인준 기자

“송광사 오불도” 제자리 찾아 기뻐

美 8군 미술품 관리했던 마티엘리 인사동서 구입... 기증 과정 밝혀



백수진 기자

도난당했던 18세기 불화 ‘송광사 오불도’를 우리나라로 돌려보낸 로버트 마티엘리(92·사진)씨가 한국을 찾았다. 20일 서울 종로구 불교역사문화박물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과 만나 오불도 기증 과정을 설명했다.

마티엘리씨는 1958년 한국에 와 30년간 주한 미 8군에서 미술품 관리자로 일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 근처에서 살면서 “한국이 1960~1970년 근대화를 거치며 옛것들을 내다버리는 게 안타까워 위 인사동에서 골동품을 하나둘 사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오불도도 이때 구입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간 마티엘리씨는 “20

년간 오불도를 집에다 걸어놓고 봤는데 퇴직하고 집이 좁아져 2014년 포틀랜드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했다. 이후 문화재청의 조사로 그림이 도난된 불화라는 것을 알게 됐고 송광사로 돌려보내는 데 동의했다. 그는 “도난 그림이라는 게 밝혀지고 원래대로 돌아오니 참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들까지 다 키워냈다”면서 “한국은 두 번째 고향”이라고도 했다.

송광사 오불도는 조선 후기 화승인 겸이 1725년 제작한 ‘오십삼불도’ 중 하나다. 오불도는 원래 2폭이었으나 1970년대 초반에 사라졌다가 이 가운데 1폭이 이번에 환수됐다. 백수진 기자

인사

김근상 CBS기독교방송 이사장



김근상 대한성공회 은퇴 주교가 20일 열린 재단법인 CBS기독교 방송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며 취임 예배는 7월 3일 오전 11시 CBS 목동 사옥에서 열린다.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장 임형진
- ▲서울시>승진(행정직 3급)> 기획담당관이 영기 > 언론담당관 이수연 > 재정정책과장 여장권 >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정광현(기술직 3급)> 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중(행정직 4급) > 언론담당관 박경환 > 사회혁신담당관 김정윤 > 시민소통담당관 송인상 > 감사담당관 박영준 > 여성정책담당관 김경현 > 정보기획담당관 김순희 > 복지정책과 조영정 > 환경정책과 박숙희 > 세무과 최한철 > 주택정책과 송광남
- ▲상수도사업본부 최생인(기술·연구직 4급) > 하천관리과 김종영 > 도로관리과 신동호 > 조경과 하재호 > 서대문구 김선찬 > 어린이병원 정덕수 > 시설계획과 박상보 > 안전총괄과 이도우 > 도시활성화와 이순하 > 성북구 정책근 > 토지관리과 박문제 > 총무과 김원집 > 보건환경연구원 최태석 > 김일영 > ▲이목영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센터장 전보 > 인재개발연구센터장 김주봉 > 실장 전보 > 경영기획실장 정해관 > 인재개발기획실장 김성철 > 출연기관연구실장 유대성 > 융합역량연구실장 권혁상 > 스마트교육실장 고은정 > 미래전략실장 이봉락 > 경력개발실장 지상현 > 팀장 전보 > 고객소통팀장 이경애 > 시설관리팀장 류영근 > 글로벌협력팀장 최수정
- ▲아시아경제TV > 마케팅국장 김태계
- ▲아시아투데이 > 임용 > 미래전략실장 최정
- ▲CBS > 논설위원실장 박종철 > 선교TV본부장 정재원 > 선교TV본부 선교국장 유승우 > 대구방송본부장 김일근 > 청주방송본부장 김기수 > 제주방송본부장 최중우 > 마케팅본부장 양경주
- ▲EBS > 유아인력개발팀장 남신숙 > 창의융합교육부장 조혜경 > 대외협력부장 류성우

김우경 척추신기술학회 공동회장

홍순직, '몽골 친선우호 훈장'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대한척추신기술학회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홍순직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몽골 정부가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포상인 ‘친선우호 훈장’을 받았다.

플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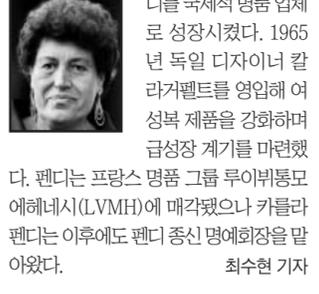
▲한양대는 21일 오전 11시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에서 언어학 석학인 앤 커틀러 호주 웨스턴시드니대학 연구석좌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기후변화센터와 한국법제연구원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행정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은 23일 오후 1시 한양대 제3법학관에서 ‘공공기관의 법적 문제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광배희)는 23일 오후 2시 30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음

이탈리아 ‘패션 전설’ 카를라 펜디

이탈리아 럭셔리 패션 브랜드 펜디를 글로벌 패션 회사로 키우는 데 힘쓴 카를라 펜디(79)가 19일(현지 시각) 별세했다. 이탈리아 언론은 ‘패션 전설’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펜디가 로마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20일 보도했다. 그는 폐 합병증을 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펜디 가문 5대째 중 한 명인 카를라 펜디는 1925년 부모가 가족·모피 가게로 시작한 펜디에 합류, 홍보 책임자를 맡아 펜디를 국제적 명품 업체로 성장시켰다. 1965년 독일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를 영입해 여성복 제품을 강화하며 급성장 계기를 마련했다. 펜디는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에 매각됐으나 카를라 펜디는 이후에도 펜디 종신 명예회장을 맡아왔다. 최수현 기자



- ▲이유식 前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별세, 이용천 대전 성광교회 담임목사·이용선 SK하이닉스 PL·이동혁 AKAMAI 전무 부친상=20일 0시 50분 대전 성광교회, 발인 23일 9시, (042)486-9191
- ▲정세채 前 고려투자자문 부사장 별세, 정찬수 CI제일제당 부장·정찬욱 삼성카드 고객센터 파트장·정운희 부친상, 남석우 삼성전자 전무 장인상, 김시연·박경민 시부상=19일 7시 3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7시, (02)3410-6917
- ▲조동호 별세, 조진표 현대해상 차장·조진형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차장·조준희 관교여중 운동부 지도자·조지연 피아노·강사 부친상=20일 18시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2일 7시, (02)2227-7580
- ▲조태익 별세, 조진성 조선일보 CS동명콘서트 대표 부친상=20일 13시 고창 우리정례식장, 발인 22일 9시, (063)563-2348
- ▲황헌천 예비역 육군 준장 별세, 황국헌·황국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황국성 동방에프티엘 이사·황성진·황인선·황명선 부친상, 송광주·이윤환 유니에스 대표 장인상=20일 3시 13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5시, (02)3410-6903